

과대비성(Hypernasality)을 호소한 환자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

A Clinical Assessment of Surgical Treatment on Hypernasality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음성언어의학연구소

최홍식 · 김명상 · 이해성 · 표화영

저자들은 1994년 1월부터 1996년 8월까지 과대비성(hypernasality)을 주소로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상저부 인두피판(superior based pharyngeal flap) 혹은 후인두벽 증대 (posterior pharyngeal wall augmentation) 시행받은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후의 치료결과를 판정하였다. 수술 전후의 치료결과는 2명의 이비인후과의사와 1명의 언어치료사가 구강을 통한 내시경 적접사와 음성평가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판정하였다.

환자의 연령은 5세부터 54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25.9세였으며 남성이 11명, 여성이 9명이었다. 수술 후 추적관찰기간은 1개월에서 17개월까지 분포하였고 평균기간은 5.6개월이었다. 수술전 경구개와 인두벽의 운동성에 따른 폐쇄양상은 coronal type이 2예, sagittal type 4예, circular type 14예였고, 연인두 공간은 25%가 2예, 50%가 10예, 75%가 8예였다. 수술후 결과는 비성의 정도와 연인두폐쇄 정도에 따라 판정한 결과 개선되지 않은 경우가 6예, 개선된 경우가 8예, 정상에 가까운 경우가 4예, 오히려 과소비성(hyponasality)이 생긴경우가 2예였으나 수술후 개인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만족과 불만족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과대비성(hypernasality)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는 인두측벽의 운동성이 수술후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와 측면공간(lateral port)의 크기를 어느정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좋은 결과를 얻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